

할리우드 3D 영화, 2010년 유럽 박스오피스 흥행 주도

2011. 7. 4

Overview

유럽시청각연구소(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유럽 박스오피스 최고 흥행작은 3D 영화 '아바타(Avatar)'로 나타났다. 또한 티켓판매량 기준 Top 20에 진입한 영화 중 10편이 미국에서 제작한 3D 블록버스터로 집계돼 할리우드 3D 영화가 유럽 박스오피스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iefing

유럽 박스오피스, 2010년 흥행작 상위 20편 중 10편이 3D 영화

- 유럽시청각연구소(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¹⁾가 발표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²⁾의 박스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유럽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할리우드 3D 블록버스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티켓판매량 기준 유럽 박스오피스 20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아바타(Avatar)', '토이스토리 3(Toy Story 3)',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in Wonderland)' 등 10편 이상이 미국 3D 블록버스터로 집계됨
 - 2010년 유럽 박스오피스 차트 1위를 기록한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의 3D 영화 '아바타'는 약 4,300만 장의 티켓 판매고를 기록함
- 2010년 EU 회원국들의 박스오피스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64억 5,000만 유로(93억 달러)로, 이는 3D 영화 관람료 인상에 따른 효과이며 실제 판매된 영화관 티켓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1.6% 감소한 9억 6,700만 장으로 집계됨
 - 영국의 3D 박스오피스 매출은 전체 박스오피스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3D 티켓판매 규모는 각각 전체 티켓판매량의 16%와 17%를 차지했음

1) 유럽시청각연구소(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는 1992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의해 설립된 미디어 기구로, 영화, TV, 비디오, DVD, 뉴미디어 등에 대한 통계 정보와 분석을 제공함

2) 유럽연합(EU) 소속 27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라트비아)의 박스오피스 통계를 산출함

Table 1 2010년 유럽 박스오피스 티켓판매량 Top 20

순위	타이틀 명(영문 명)	제작 국가	박스오피스 티켓판매량	3D영화 여부
1	아바타(Avatar)	미국	43,309,016	3D
2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art1)	영국+미국	31,275,121	
3	토이스토리 3(Toy Story 3)	미국	27,511,206	3D
4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Alice In Wonderland)	미국	26,703,665	3D
5	인셉션(Inception)	미국	25,504,921	
6	슈렉 포에버(Shrek Forever After)	미국	25,130,938	3D
7	트와일라잇 세가: 이클립스 (The Twilight Saga: Eclipse)	미국	23,661,004	
8	슈퍼배드(Despicable Me)	미국	14,787,983	3D
9	셜록홈즈(Sherlock Homes)	미국	13,166,906	
10	로빈 후드(Robin Hood)	영국+미국	13,108,518	
11	드래곤 길들이기 (How To Train Your Dragon)	미국	12,406,370	3D
12	섹스앤더시티2(Sex and the City 2)	미국	12,335,567	
13	타이탄(Clash of The Titans)	미국	11,767,222	3D
14	셔터 아일랜드(Shutter Island)	미국	11,316,515	
15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Prince of Persia: The Sands of Time)	미국	10,960,662	3D
16	공주와 개구리 (The Princess and the Frog)	미국	10,679,895	
17	아이언맨2(Iron Man 2)	미국	10,372,268	
18	나니아연대기(The Chronicles of Narnia: The Voyage of the Dawn Treader)	미국	8,743,094	3D
19	라퐁젤(Tangled)	미국	8,383,686	3D
20	베스트 키드(The Karate Kid)	미국	8,141,197	

자료: 유럽시청각연구소(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 o 한편, 2010년 유럽 박스오피스 상위 20편의 영화 중 유럽에서 제작한 작품은 미국 영화사의 지원 하에 제작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art1)'과 '로빈 후드(Robin Hood)'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박스오피스에서 유럽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6.8%에서 2010년 25.3%로 감소한 반면, 미국 영화 비중은 2009년 66.9%에서 2010년 68%로 증가함
- o 최근 할리우드 3D 영화는 미국 내 박스오피스 수익보다 해외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개봉한 '슈렉 포에버(Shrek Forever After)',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in

Wonderland)', '로빈후드'의 경우 해외 수익률이 미국 내 수익률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높았음

- '페르시아의 왕자(Prince of Persia)'는 미국 내 수익률 27.1%를 기록한데 비해 해외 수익률 72.9%를 기록하며 국내 대비 해외에서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영화로 나타났음

Analysis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3D 영화들이 미국 내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3D 영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국가별로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화 시장을 형성해왔던 유럽에서는 미국산 3D 영화들이 흥행 차트 상위권을 점유하며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미국 영화의 점유율이 유럽 자체 제작 영화 비중을 넘어선 이래, 개별 국가별로 3D 스크린을 확대하며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지역에서의 박스오피스 성공 여부로 개봉작의 흥행이 결정되었던 글로벌 3D 영화시장에서 유럽시장의 영향력과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1. Hollywood Reporter, 'Hollywood 3D pics dominate Europe', 2011. 6. 25
<http://www.variety.com/article/VR1118039106?refcatid=3762&printerfriendly=true>
2.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3D drives EU gross box office to record high in 2010 as market share for European film drops', 2011. 5. 9